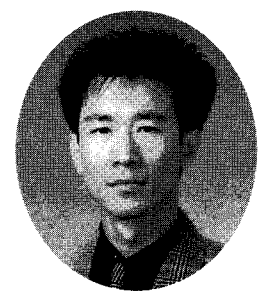


재래시장 상추 기준치 444배

유해 농산물... 고 신선했... 해 실시하고... 안정성... 있다.

자극적 용어가 “유해농약” 만든다

단순화·문제화·시각 효과보다 본질 우선되어야



권진욱
충남대 농약학과 박사수료

세 상의 모든 일에는 반
드시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유익성이
있으면 유해성도 있는 것 같다.
문화라는 멋진 단어가 있다. 한
편 상식, 지식이라는 단어도 있
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하
는 것은 문화를 구성하게되고 이
러한 것 중에도 알아서 유익하고
알아서 유해한 것이 있다는 의미
다. TV의 퀴즈프로그램이나 입
사시험의 상식시험에는 실제 상
식 이상의 것을 물어보는 것이
많다. 그런 TV프로그램과 시중
의 상식 예상문제집을 들춰보고
는 “난 참 바보구나”하고 느낄때
도 있다.

하지만 “지식”은 상식과 별개
다. 지식은 때론 상식이상의 몫

을 한다.
그래서인지 전문 지식은 있어
도 다양한 상식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서
유익성, 유해성을 언급한 이유는
이런 상식과 지식과의 관계를 설
명코자 하는 것이다. 신문을 펼
쳐보면 이런 유익성, 유해성, 상
식, 지식이 보인다. 그리고 진실
과 거짓도 보인다.
진실과 거짓은 때론 혼돈하기
쉽다. 꾸며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혹은 사실인것과 그렇지 않
은 것, 어감의 차이지만 서로 다
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신문에
있다. 따라서 상식이상의 것을
보도할때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없
으면 남의 지식이라도 빌려 사실
을 왜곡되지 않게 해야하는 것이

신문이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
로 알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알 권리
에 대한 답변으로서 거짓정보의
제공도 커진것이 사실이다. 하지
만 이러한 거짓정보의 제공이 국
민복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 매체담당자는 과연 맞이나
될까?

1997년 한해 주요 일간지에 보
도된 농약관련 기사 중 잘못 계
재된 내용을 적지만 배운 지식을
통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내용 중 인용보도내용
은 특정 신문사를 비방하고자 하
는 것이 아니며 보다 정확한 보
도가 되기를 바라는 필자의 소박
한 뜻이 담겨 있음을 양해해 주
기 바란다.

세계일보. 1997년 1월 11일 21면(사회)

「채소류서 맹독성 농약/ 가락시장 반입 상추 등」

본 보에서 언급한 농약을 원문대로 적어보자. 포록시미돈, 에토프로포스, EPN. “포록시미돈”. 우리 말로는 정체불명의 농약이다. 영어로 Procymidone을 언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프로파(수화제, 미분제, 과립혼연제)라는 품목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제형별 농약 모두 독성분류상 저독성이다.

“에토프로포스”. Ethoprophos이다. 단제로는 에토프입제, diazinon과 합제로서는 에토프·다수진입제로 등록되어 있다. 단제 및 합제 모두 저독성이다.

“EPN”. 이피엔유제로 등록된 고독성(어독성 II 급)이다. 따라서 “맹독성” 농약은 없다.

같은 내용으로 97년 1월 11일자 문학일보 30면(사회)에는 「가락시장/상추에 농약/ 일부 전류기준치 초과」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동일 내용의 보도방법 차이는 전문가에게 웃음거리를 준다. 그리고 농약만 독은 아니다.

농약보도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콩나물이다. 콩나물 보도를 모아서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신문 본 사람은 아무도 콩나물을 먹지 않았을 것 같다.

동아일보. 1997년 3월 7일 37면(사회)

「농약콩나물 有해논란/ 300곳 조사 61% 사용」

주요 내용은 「…… 이번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카벤다짐(상표명 호마이 72.3%)이 었으며 다음은 비타지람(12.8%), 캡탄(4.8%) 등이었다. …… (중략) 원료콩 자체에 농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콩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지만 반드시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

카벤다짐과 호마이는 다른 것이다. Carbendazim은 단제로는 가벤다(수화제, 액상수화제)의 품목명을 가지며 마이코·해마지의 상표로, 합제로는 가벤다·가스신 수화제, 가벤다·뉴아리물 액상수화제, 가벤다·이프로 수화제 등의 품목명으로, 고추탄·온마을·새미나 등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호마이는 thiophanate-methyl과 thiram의 합제로서 지오람 분의제, 지오람 수화제로 등록되어 있다. 품목명과 상표명은 서로 다른 것이며 특히, 카벤다짐과 호마이는 같은 약제가 아니다. 비타지람은 carboxin과 thiram의 합제로 된 카보람분제의 상표명이고, 캡탄은 captan이 주성분으로 캡탄 수화제란 품목명을 갖고 오소싸이드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면 콩나물 재배업자들은 카벤다짐을 얼마나 사용했고, 호마이는 또 얼마나 사용했으며, 카보람, 오소싸이드는 얼마나 사용했단 말인가? 품목명이나 상표명 중 통일된 명을 선택하여 보도하는 것이 정확한 사용 약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한겨레신문. 1997년 3월 7일 25면(사회)

「콩나물 재배업체 58%, “농약쓰다”」

「……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카벤다짐(상표명, 호마이), 캡탄 등의 농약으로 ……」

몇 %의 오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받아 기자가 작성했을 것이 뻔한데,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수치는 다르다. 물론 동아일보에는 300곳, 한겨레 신문에는 302곳이 조사 대상이었다고 하니 서로 61%와 58%로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조사 기관이 같음에도 다른 보도가 나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쨌든, 카벤다짐은 호마이가 아니다.

서울신문. 1997년 3월 7일 22면(사회)

「콩나물업체 58%, 독성농약 사용/ 복지부 조사」

본 보에서는 302개소 58%라 표기 했으며, 호마이가 72.3%, 비타지람 12.8%, 캡탄 4.8%, 탄저병약 3.2%, 벤레이트, 벤레이트티, 마이코도 0.5%라고 보도 했는데 세 종의 신문을 종합하면 302개소 58%가 맞는 보도일 것 같다. 한편, 본보에서 언급한 농약 중 벤레이트는 benomyl이 주 성분인 베노밀 수화제로 품목명이 등록되어 있고 벤레이트·두루다·다코스의 상표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벤레이트티는 베노람수화제의 품목명으로 benomyl과 thiram의 합제로서 벤레이트티·큰나라 등의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마이코는 전술했듯이 가벤다수화제로 등록된 품목명의 상표로 위 세 신문을 종합하면 도대체 어떤 농약이 얼마만큼 사용됐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다. 아울러 품목명으로서 가벤다, 베노밀은 사과와 탄저병에 사용되는 약제인데, 서울신문에서 언급한 탄저병약은 또 어떤 탄저병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인지 상식밖의 보도내용이다. 농약공업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약사용지침서(비매품) 한편만 보아도 제대로 알 수 있게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있을텐데 말이다.

한편 1998년 1월 30일자 동아일보에는 「농약콩나물 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부, 잔류농약 허용 인에의 제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콩나물에 대한 잔류농약의 규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준 기사인데, 보도 내용 중 「…… 안전본부는 재배업자가 농약성분이 든 성장촉진제를 사용해 콩나물에 농약성분이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콩나물재배시 이를 사용하지 말도록 설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성장촉진제'.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조정제라 부르고 있으며 약제에 따라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하기도 한다. 어쨌든, 농약성분이 든 성장촉진제는 무엇인지 의문이 간다. 97년 현재 등록된 성장조정제는 25품목으로 그 중 2품목만이 합제로서 2종의 성장조정제가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성장조정제도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법의 분류상 농약의 범

주에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콩나물에서 검출되었다고 또는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살균제 중 성장조정제와의 합제가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인가?

97년 인삼관련 잔류농약보도는 BHC와 Quintozene이 주된 것이었다. 그 중 경향신문 97년 4월 18일자 23면(사회) '밀수 '농약인삼' 국산둔갑'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유기수은계 살충제인 BHC를 제초제라 하였으며 Quintozene을 키토젠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문화일보와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키토젠이라고 표기하였다. 외국어의 올바른 표기는 신문교열의 중요한 몫이다. 특히 농약명의 경우 외국어의 표기방법보다는 오히려 품목등록된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단 농약 뿐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농산물이나 식품중 검출된 농약 개별에 관해 언급시에는 합제의 경우 농약의 원제명(주성분명)을 이야기 함이 옳다. 왜냐하면 잔류에 대한 기준과 검사는 규제 대상 농약의 주성분(원제)이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용 불가 농약이 수입 농산물에서 검출된 경우는 원산지에서의 사용 여부와 우리나라에서의 법적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서 언급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을까?

각 나라마다 농업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독이 그들에게 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 것이기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때는 검출되지 말아야 하지만 보도의 단순화를 위해 무조건 "검출되었다", "……배 가랑 높았다"라고만 일축해버리는 기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맹독성 운운은 '猛毒筆'

기자분들은 맹독농약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나 보다. 하지만 시민들과 농약관계자는 분명 싫어할 것이다. 서두의 **세계일보 1997년 7월 11일 21면(사회) '제소류서 맹독성 농약' 가격시장 반입 상충**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해 필자는 맹독성 농약은 없었다고 했다. 농림부에서 발간한 농약관리법령집을 보면 농약은 독성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어독성의 경우 제품농약의 잉여에 대한 반수치사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I, II, III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맹독성농약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자. **경향신문 97년 10월 1일 21면(사회) '경기 골프장 7곳 맹독농약 검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다. 맹독성 농약의 사용이 금지된 지오릭스 성분이 검출됐다.' 지오릭스는 endosulfan이 원제로 지오릭스 분제와 유제로 각각 품목이 등록되어 있고 분제는 마릭스라는 상표로 판매되고 있다. 분제는 저독성(어독성 I 급)이며 유제는 고독성(어독성 I 급)이다. 어느 농약도 맹독성농약은 없다.

경향신문 97년 11월 11일 22면(사회) '가격시장 농산물 일부 농약기준치 초과 검출'의 기사를 살펴보자 「..... 상추에서 EPN농약이, EPN은 맹독성 살충제 농

약으로 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치사량이 24mg/kg인 것으로.....」

EPN은 이피엔유제가 품목명으로 EPN 45%가 함유된 고독성(어독성 II 급)의 살충제다. 또한 '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치사량이.....'의 문구는 '흰쥐를 대상으로 시험한 급성독성반수치사량은 실험동물 체중kg당, 경구의 경우 49mg, 경피는 268mg인 것으로 표현함이 옳다. 물론 상추에서 EPN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검출량과 독성보다는 검출된 사실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좀더 초점을 두어 기사를 쓰는게 독자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경향신문 97년 10월 14일 22면(사회) '제소에서 맹독농약 검출'의 기사를 살펴보자.

「..... 맹독성 살충제인 클로로피리포스는 쥐에 대한 독성실험에서 135~163ppm을 투여하면 실험대상의 절반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사는 치사량이라는 개념을 제법 정확하게 표현했다. 즉, 실험대상의 절반이 죽는다는 것이 급성독성반수치사량을 의미하는 것인데, 흰쥐를 대상으로 한 독성실험결과 급성독성반수치사량이 얼마다라고 해서 반드시 독성이 강하다는 식의 언급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농산물중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무조건 맹독성을 운운하는

것이 바로 猛毒筆이 아닌가 싶다.

책임수반돼야 유익한 글

농산물 중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검출한게 미만인 상황에 대해 '검출한게 미만이였다' '검출한게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검출되지 않았다'. 어떤 표현이 유해하지 않는 표현일까? 위 세 표현 모두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신문이나 다른 매스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이 상황은 유해해지고 유해해지지 않는다.

1997년 주요 일간지의 내용중에서 주로 살펴보았지만 실제 많은 환경관련 수필집, 칼럼 등 비전공자가 잘못 기술한 내용의 글이 많다. 글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읽든지 상관 안한다는 심산인가? 아니면 상식같은 것을 지식이라 떠벌리는 전공자들이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농업환경을 전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유전공학 기법에 의해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이 나왔을 때 그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언급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사용농산물을 더욱 문제삼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농약정보**